

은유의 은폐와 부각의 변화: 신조어 ‘-각’과 ‘불금’을 중심으로

심주완 · 최영주*

(조선대학교)

Shim, Juwan & Choi, Youngju. (2018). Metaphoric highlighting and hiding in neologism: Focusing on the new expressions *-kak* ‘exact fit’ and *pwulkum* ‘burning Friday night.’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6(2), 271-291. In a metaphorical mapping between source and target domains, not all of the elements of the domains participate in the mapping. Some elements of the source domain are highlighted while others are hidden. Lakoff and Johnson (1980) call this metaphorical highlighting and hiding. This paper explores how the metaphorical highlighting and hiding of the new affixes *-kak* ‘exact fit’ and *pwul-* ‘passionate’ change depending on which metaphors the expressions occur with. The development of the new meaning ‘exact fit’ from the original meaning of *-kak* ‘angle’ demonstrates that the sharpness of angles which is highlighted in the metaphor RELATIONSHIP IS FIGURE is hidden in the new meaning, while the exactness of angles is highlighted in the metaphor PERCEPTION IS FIGURE. The prefix *pwul-* ‘fire’ in *pwulkum* ‘burning Friday night’ positively highlights the high temperature of fire in the metaphor ATTITUDE IS FIRE while it negatively highlights it in the metaphor ANGER IS FIRE. This case study shows how expressions highlight different aspects when they are utilized in different metaphors.

주제어(Key Words): metaphorical highlighting and hiding, neologism, *-kak*, *pwulkum*, PERCEPTION IS FIGURE, ATTITUDE IS FIRE

1. 서론

Lakoff & Johnson(1980)은 은유를 수사학적 기법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던 전통적인 생

* 심주완: 제1저자, 최영주: 교신저자

각에서 벗어나, 우리의 인지를 지배하는 핵심기제로서 우리 일상대화에서 만연해 있다고 설명한다. 은유는 더 이상 문학작품 등에 사용되는 수사학적 장치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모든 추상 개념은 신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은유를 통해 개념화된다고 설명한다. 때문에 이러한 개념화에 사용되는 은유를 기존의 은유와 구별하기 위해 개념적 은유(conceptual metaphor)라고 칭한다. 개념적 은유라는 것은 복잡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좀 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두 영역(domains)의 구성 요소간의 인지적 사상(cognitive mapping)이라고 정의된다. 예를 들어, [이론은 건물] 은유에서 이론의 바탕이 되는 기본 가정은 건물의 기초에 사상되며, 이론이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건물이 튼튼하게 잘 지어진 것에 사상된다. '그 이론은 기초가 튼튼하다'나 '다음과 같은 증거는 그 이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는 표현은 위와 같은 인지적 사상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지적 사상의 특징 중 하나가 부분성(partiality)이다. 부분성이라 함은 하나의 은유에 참여하는 근원영역의 모든 요소가 다 은유적 사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이론은 건물] 은유에서 건물의 기초나 뼈대라는 요소, 혹은 건물의 견고함과 같은 요소는 인지적 사상에 참여하지만 건물의 방이나 창문, 혹은 복도라는 요소는 인지적 사상에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네 이론은 기초가 튼튼하다'와 같은 표현은 자주 사용되지만, '네 이론은 방이 많고 창이 넓고 긴 복도가 있구나'라는 표현은 쉽게 사용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이론은 건물] 은유에서는 건물의 기초와 뼈대, 건물의 견고함과 같은 요소는 부각(highlighting)되고, 방이나 창문, 혹은 복도와 같은 요소는 은폐(hiding)된다. 은유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적 사상이 달라지기도 한다. 때로 '그 이론의 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으로 인해 이 논지의 맹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와 같이 새롭고 창의적인 은유 표현을 사용했을 때는 [이론은 건물] 은유에서 건물이라는 근원영역의 한 요소인 창문이 부각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Lakoff & Johnson 1980).

본 논문에서는 신조어를 통해 어떻게 시대적으로 은유의 은폐와 부각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시대가 바뀌게 되면 사람들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언어에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기 마련이다. 신조어는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라고 보인다. 신조어의 출현은 사용자들의 사고를 잘 반영하기 때문이다. 신조어에는 과거와는 다른 은유적 사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에 따른 은유적 은폐와 부각 양상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는 신조어 '각'과 '불금'에 나타나는 은유의 은폐와 부각 양상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¹⁾

1) 본문에 나온 예문들 중 한국어 예문은 모두 google.com에서 발췌한 것이다.

2. 개념적 은유와 은유적 사상

은유는 문학작품에서 주로 쓰이는 비유적 표현 기법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Lakoff & Johnson(1980) 이후 단순한 언어적, 문학적 표현으로서가 아닌 개념으로서 연구가 확장되었다. Lakoff & Johnson(1980)은 그들의 저서 *Metaphors We Live By*에서 은유를 인간의 사고와 개념 체계 속에서 경험의 한 영역을 다른 경험 영역으로 이해하는 인지적 사상으로 정의하면서, 이러한 개념적 은유는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나 사고에도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다음 (1)의 예문들은 [인생은 여행(LIFE IS A JOURNEY)]이라는 은유를 보여주고 있다. 인생과 여행이라는 별개의 두 개념 사이에는 경험적 측면의 유사성이 존재한다. 그러한 유사성을 바탕으로, ‘인생’이라는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여행’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다.

- (1) a. *Where are we?*
 b. *We're stuck.*
 c. *It's been a long, bumpy road.*
 d. *This relationship is a dead-end street. We're just spinning our wheels.*
 e. *Our marriage is on the rocks.*
 f. *We've gotten off the track.*
 g. *This relationship is foundering.* (Lakoff & Johnson, 1980, p. 45)

(2)에서 알 수 있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여행자’로, ‘삶의 목적’이 ‘목적지’로, ‘목적지를 이루는 수단’이 ‘여행길’로, ‘삶에 있어서의 선택’이 ‘교차로’ 등으로 사상된다.

- (2) a. *The person leading a life is a traveler.*
 b. *His purposes are destinations.*
 c. *The means for achieving purposes are routes.*
 d. *Difficulties in life are impediments to travel.*
 e. *Counselors are guides.*
 f. *Things you gauge your progress by are landmarks.*
 g. *Choices in life are crossroad.*
 h. *Material resources and talents are provisions.* (Lakoff & Johnson, 1980, p. 46)

Lakoff & Johnson은 또한 [인생은 도박(LIFE IS A GAMBLING GAME)]이라는 은

유로 은유적 사상을 설명한다. 위의 [인생은 여행] 은유처럼 인생의 개념과 도박(gambling game)의 개념 간에는 유사성이 존재하며 인생이라는 어려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도박이라는 다소 쉬운 개념을 사용하여 연결하고 있다. 예문을 살펴보면 *take my chances, odds are against me, got an ace up my sleeve, win big, loser*와 같은 도박에 사용되는 어휘를 사용하여 인생을 이해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a. *I'll take my chances.*
 b. *The odds are against me.*
 c. *I've got an ace up my sleeve.*
 d. *He's holing all the aces.*
 e. *He won big.*
 f. *He's real loser.* (Lakoff & Johnson, 1980, p. 51)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인생에서의 성공의 기회’로, ‘게임에서 이길 배당률’이 ‘인생에서의 성공 확률’로, ‘게임에서의 승리’가 ‘인생에서의 큰 성공’으로, ‘게임에서의 실패’가 ‘인생에서의 큰 실패’로 사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은유에서의 은폐와 부각

은유는 근원영역의 요소를 목표영역의 요소에 사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은유적 사상(metaphorical mapping)은 개념의 모든 부분을 이용하여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필요한 요소들을 사용하고 나머지 다른 측면들은 은폐시킨다. 어떤 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부각시키다 보면, 그 은유와 일치하지 않는 필요 없는 다른 측면은 은폐된다. [논쟁은 전쟁] 은유를 살펴보면, ‘주장에 반박할 수 없다’를 ‘방어할 수 없다’로 ‘주장을 무력화 시키다’를 ‘침몰 시키다’로, ‘논쟁에서 이기는 것’을 ‘승리하다’로, ‘반론을 제기하다’를 ‘쏘다’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전쟁의 공격과 방어, 승리와 패배를 중심으로 은유적 사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Lakoff & Johnson 1980; Kövecses, 2010).

- (4) ARGUMENT IS WAR
 a. Your claims are *indefensible*.
 b. He *attacked* every weak point in my argument.
 c. His criticism were *right on target*.
 d. I *demolished* his argument.

- e. I've never *won* an argument with him.
- f. You disagree? Okay, *shoot!*
- g. If you use that *strategy*, he'll *wipe you out*.
- h. He *shot down* all of my arguments. (Lakoff & Johnson, 1980, p. 5)

[논쟁은 전쟁] 은유가 공격과 방어 중심으로 사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격과 방어, 승리와 패배의 측면은 부각되고 다른 측면들은 은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쟁에서 국가나 단체 간의 협동이나 전쟁에 대한 휴전과 협상 같은 개념은 은유로 활용되지는 않는다. 공격과 방어처럼 은유적 사상이 연결되는 부분을 은유적 사상에서의 ‘부각’이라고 하며, 협동, 휴전처럼 활용되지 않는 부분을 ‘은폐’라고 한다(Kövecses, 2010).

토론은 하나의 주제를 둘러싼 다른 의견들의 차이를 좁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장과 반박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주장 제시와 반박은 전쟁에서의 공격과 방어라는 요소와 연결된다. 논쟁의 승리자와 패배자는 전쟁에서의 승전국과 패전국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개념들은 전쟁의 요소와 잘 연결된다. 하지만 논쟁에서는 전쟁의 동맹이나 휴전의 요소는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논쟁이라는 개념에는 서로 다른 주장을 제시하는 참가자끼리 협동으로 뭉치는 상황이나, 결론이나 타협을 찾지 않고 오랜 시간 해당 사안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논쟁에서는 전쟁의 동맹이나 휴전의 요소는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전쟁이라는 근원영역의 요소이기는 하나, 목표영역인 논쟁의 요소가 아닌 것은 은유적 사상에서 자연스럽게 무시된다. 이것이 바로 은유에서의 부각과 은폐의 과정이다.

Kövecses(2010, p. 93)는 은유의 은폐와 부각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또 다른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논쟁이라는 목표영역을 이해하기 위해 용기, 여행, 전쟁, 건물과 같은 다양한 근원영역이 동원되어 [논쟁은 그릇], [논쟁은 여행], [논쟁은 전쟁], [논쟁은 건물]이라는 은유가 형성되었을 때, 각 은유는 논쟁이라는 개념의 일부 측면을 부각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한다. 즉, [논쟁은 용기] 은유에서는 논쟁의 내용이 부각되고, [논쟁은 여행] 은유에서는 논쟁의 진행과정이 부각되고, [논쟁은 전쟁] 은유에서는 논쟁에서의 공격, 방어, 승리, 패배 등이 부각되며, [논쟁은 건물] 은유에서는 논쟁의 구축이나 논의의 견고함 등이 부각된다고 설명한다. 이렇듯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근원영역을 동원하는 것은 각 근원영역마다 목표영역의 다른 측면을 부각하기 때문이다.

- (5) AN ARGUMENT IS A CONTAINER: Your argument has *a lot of content*.
What is the *core* of his argument?
- AN ARGUMENT IS A JOURNEY: We will *proceed in a step-by-step* fashion. We have *covered a lot of ground*.

AN ARGUMENT IS WAR: He *won* the argument. I couldn't *defend* that point.

AN ARGUMENT IS A BUILDING: She *constructed* a solid argument. We have got a *good foundation* for the argument.
(Kövecses, 2010, p. 93)

지금까지 학계에서 제시된 은유의 은폐와 부각에 대한 설명은 기존에 발견된 근원영역과 목표영역의 은유적 사상을 살펴봄으로써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표현이 시대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고, 그 때 은유적 은폐와 부각이 변화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고찰해볼 기회가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신조어 '-각'과 '불금'에 나타나는 은유적 은폐와 부각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4. 신조어 '-각'에 나타난 은유의 은폐와 부각

최근 인터넷 언어의 발달을 통해 신조어가 다량 생산되고 있다. 인터넷 언어를 통해 생산된 많은 신조어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쉽게 끌 수 있는 창의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은유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은유의 은폐와 부각의 측면에서 과거와는 다르게 쓰이는 표현들이 있다. 그 첫 번째 예로, 최근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접미사 '-각'의 쓰임과 그것의 은유적 부각과 은폐 양상이 어떻게 변해오고 있는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4.1. [관계는 도형 (RELATIONSHIP IS FIGURE)] 은유

예전부터 인간관계 혹은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성격을 도형의 개념과 은유적 사상을 통해 연결 지었다. 과거에는 둥글고 부드러운 도형 즉, 원형은 화합과 조화 그리고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가진다는 뜻을 내포했다. 반대로 뾰족하고 모난 것은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며 성격이 거칠고 떨어져 있다는 의미로서 사용되었다. 이는 도형을 이루는데 필요한 '각'과도 연관되어 있다. '각' 역시 그 뾰족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성격상) 모나다'의 표현으로 사용되어 왔다.

도형을 이루는 요소 중 하나인 직선은 성격과 대인관계에서의 경직성을 말하고 있다. (6)에서 '직선적'이라는 표현은 '표현상 너무 직접적'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a. 이처럼 남녀 간의 서로 다른 사고 체계 때문에 여자인 당신은 남자의 **직선적인**

표현에 모욕감을 느낄 수 있지만, 남자는 자기가 한 말이 여자에게 상처가 된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이정숙, 마음을 읽어주는 유쾌한 남녀 대화법)

- b. 너무 **직선적으로** 표현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정인석, 광고주의 돈 누가 훔쳤지)

반면, 선이 반듯하지 못하고 **빼뺏어진** 것도 인간관계에서 부정적인 측면에 사용된다. (7)에서 보이듯이, ‘**빼뺏어지다**’는 다른 사람에게 좋게 마음을 쓰지 않거나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7) a. 이 한마디는 금방이라도 아이가 엄마의 사랑에 굶주려 **빼뺏게** 나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과대 포장된다. (월간 에세이 1994. 8)
 b. 너의 **빼뺏어진** 마음은 좋지 않다. (좋은 생각 1999. 6)

빼뺏어진 것도 성격상 결함으로 간주하지만 지나친 반듯함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8)에서처럼 ‘네모 반듯’하다거나 ‘너무 반듯하다’는 평가는 타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성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8) a. 그런 사람과 함께 하려면 나 또한 **네모반듯하게** 또 깎아야 하니깐. 그러니깐, 한마디로 나와 같이 이성적이지도 못하는 감성적인 여자는 **반듯하기** 짝이 없는 이 남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유민지, 외롭다)
 b. 은근 너 좋아하는 남자애들 많았는데 부담스러워서 접근을 못했잖아. 너무 **반듯반듯해서**. 오죽하면 별명이 ‘**반듯한 네모 공주**’야. (월간, 순진한 그녀의 발칙한 일탈)

지나친 ‘반듯함’이 부정적으로 평가되듯이 인간관계에서 ‘둥근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둥글다’는 표현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원만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묘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사용되어 왔으며, ‘직선’과는 달리 ‘곡선’의 개념인 ‘원만하다’는 ‘둥글둥글’과 같은 의미로, 대인관계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다.

- (9) a.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이들은 누구와도 잘 어울릴 수 있는 **둥글둥글한** 성격의 소유자로.. (chosun.com 2017.03.25.)
 b. 우린 언제나 듣지 잘난 어른의 멋진 이말 세상은 **둥글게** 살아야 해. (화이트, 네모의꿈)
 c. 최근 미국 인디애나 대학 연구팀이 이혼 후 부모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더라

도 아이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마찬가지로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매일경제 2017.07.27)

‘둥글둥글’과는 다르게 ‘모나다’ 그리고 ‘뽀족하다’와 같은 맥락인 ‘날카롭다’는 모나고 뽀족한 모양새가 뽀족한 것에 찢려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개념과 연결되어 대인관계에 있어서 불편하게 만들고 곱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성질과 연결된다. 이와 유사하게 ‘날카롭다’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혹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게 차갑게 반응하다’의 개념으로서 연결된다.

- (10) a. 상대의 **모난** 곳을 건드려 마음을 아프게 해서 안 된다. (표준국어대사전)
- b. 그녀는 매우 피곤한지 가벼운 농담에도 **날카롭게** 반응했다. (네이버 사전)
- c. **뽀족한** 소리를 한 아구다가와의 말이 생각나거니와 결코 특수 부락의 백성도 아니요, 일민도 아닌 것이 마음에 걸렸다. (심훈, 봄은 어느 곳에)

‘모나다’와 유사한 개념인 ‘각’은 대인관계의 영역으로 넘어와 (11)에서처럼 ‘딱딱하고 경직된’의 의미를 갖고 있다.

- (11) 처음 들어온 신병 녀석은 딱딱하게 **각이 잡힌** 채 평상 위에 앉아 있었다. (네이버 열린 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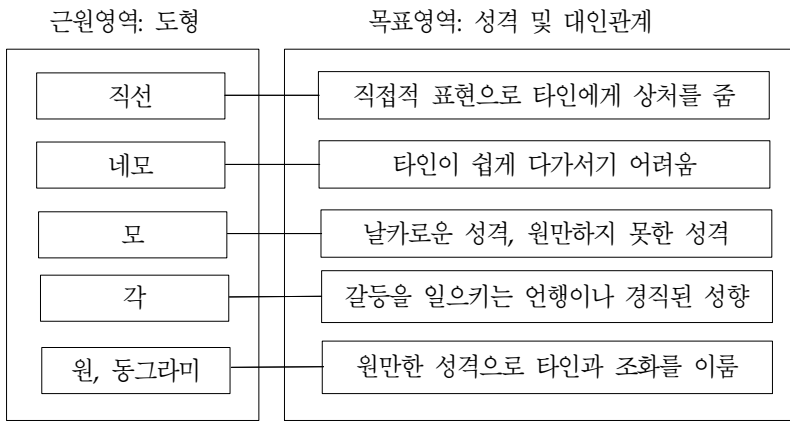
때로는 좀 더 부정적인 의미를 갖기도 한다. ‘각’의 뽀족함과 날카로움 때문에 ‘각 세우다’는 표현은 (12)의 예에서처럼 보통 ‘누군가를 찌를 듯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12) a. 침묵 깬 김무성 朴 대통령과 **각 세우다**. (chosun.com 2016.06.02)
- b. 누군가와 **대립각을 세우다** 보면 항상 대척점이라는 게 생긴다. 무척 순하고 어이없는 문제로 **각을 세운다**는 걸 알게 되면 누군가는 먼저 사과를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 (https://twitter.com/inpyo_song/status/14143223725)

종합해보면 도형과 도형을 이루는 선의 개념은 인간관계 및 성격의 개념으로 넘어와서 개인의 성격과 그 성격으로 인해 달라지는 대인관계를 나타낸다. 선에서의 ‘직선’과 도형에서의 ‘모나’ ‘각’은 뽀족하고 툭 튀어나온 것으로,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는 개념과 연결되어 성격과 대인관계의 영역과 은유적 사상을 이루면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위와 성격으로 연결 지어진다. 이와는 반대로 도형에서의 ‘둥그라미’는 ‘직선’과

‘뽀족함’ 혹은 ‘각’과는 달리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으며 잘 맞물리고 조화를 이룬다는 개념과 연결되어 타인과 잘 어울리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성격으로 규정된다.

이는 ‘등글등글하고’와 ‘곡선’같이 ‘각이 없는 상태’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지만, ‘직선’이나, ‘모’가 나거나 ‘각’이 진 상태는 대인관계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성격을 가리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그림 1>에서는 도형이라는 근원영역이 대인관계라는 목표영역에 어떻게 은유적 사상을 이루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관계는 도형] 은유

4.2. [인식은 도형(PERCEPTION IS FIGURE)] 은유

과거에는 도형의 한 개념을 이루던 ‘각’이 ‘딱딱하고 빈틈없거나 여유가 없는 성격’ 등 개인의 성격적 결함을 ‘부각’하여 은유적으로 사상되었다. 그러나 최근 ‘각’이 갖고 있는 정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미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형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정확한 각도가 필요하고, 그러한 각의 정확성이라는 도형의 특성이 부각되어 사용되고 있다. 다음 (13a)에서는 ‘각이 잡힌’이라는 표현이 ‘흐트러짐이 없이 일사불란한(자세)’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13b)에서는 ‘자신감 등이 분명하게 드러난’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모두 (12)의 ‘각을 세우다’의 의미와는 달리 긍정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3) a. 야구장을 찾은 해병대 장병들이 **각 잡힌** 응원을 펼쳐 시선을 모았습니다. 어제 경북 포항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와 KT 위즈의 경기에 해병대 장병들이 찾았습니다. 앉아 있을 때도 **각이 잡힌** 자세로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SBS 뉴스 2017.06.04)

b. 그의 자신감에는 **각이 반듯반듯하게 잡혀** 있었다. (링고, 주문)

(14)의 예문을 보면 ‘행동이나 자세가 그 상황에 필요한 정확성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각이 살아 있다’ ‘각이 나오다’와 같은 표현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a. 이연히 시구를 본 캐스터는 “투구 동작을 보니까 여느 여자 연예인들과는 다르게 팔꿈치 관절의 힘이 느껴졌다”며 “흔들림 없이 **각이 살아 있다**. 조금만 더 연습하면 정말 잘 할 것 같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중앙일보 2013.09.05.)

b. 한채영 **각이 나오는** 포즈 (스타뉴스 2017.10.24)

오히려 ‘두루뭉술하다’는 표현은 ‘둥글둥글하다’와는 달리 정확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5a)의 ‘두루뭉술한 대답’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 대충 얼버무리는 대답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15b)의 ‘두루뭉술하다’는 정확하게 묻거나 확인하지 않고 대충 일을 처리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15) a. 물론 현원지의 정확한 나이는 그녀 또한 모르고 있었으니 **두루뭉술한 대답**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일성, 음공의 대가)

b.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지?” “어림없어.” 직장에서 상사가 부하직원을 이렇게 야단을 치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2014.10.05)

독립된 명사로서 ‘각’이 접미사 ‘-각’으로 사용된 것은 본래 당구와 게임에서 유래하였다. 당구에서 쓰리쿠션을 낼 각을 보는 것에서 쓰이다가 이후 ‘포트리스’와 같은 각도를 이용하는 게임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현재에 이르러서는 각도를 이용해 스킬을 사용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의 유행으로 ‘-각’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점차 사용되는 개념의 범위 경계가 확장되었다 (16a)는 당구에서 쓰리쿠션을 낼 수 있는 적절한 공의 위치를 말하고 있다. (16b)에서는 ‘포트리스’ 게임에서 장애물이나 기타 상황에 의해 상대방을 맞출 수 있는 적절한 각도가 나오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16c)에서는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에서 상대방 캐릭터를 죽일 수 있는 적절한 상황을 말한다.

(16) a. 쓰리 쿠션 **각**이 나온다.

b. **포각**이 안 나온다.

c. **킬(kill)**각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위와 같이 각도에 대한 계산이 매우 중요한 당구 등에서 사용되었던 '각'이 게임으로 확장되면서 '포각' 혹은 '킬각'에서와 같이 접미사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네이버 지식 백과'에 나온 접미사 '-각'의 정의이다.

- (17) -각: 무엇인가를 확실한 때, 혹은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할 때 쓰는 접미사. 뭔가 이뤄낼 만한 판세 혹은 뭔가를 하기 적절하거나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을 뜻한다. 과거에 벌어졌을 수도 있는 일에는 사용하지 않고 멀지 않은 미래에 벌어질 확실한 사건에만 사용한다. (네이버 지식 백과 신조어 사전)

이처럼 접미사 '-각'은 게임영역에서 처음 사용되었지만, 최근 인터넷과 각종 대중매체에 서는 '-각'을 게임의 영역을 넘어선 일상생활의 영역에서까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18)에서는 '치킨각'을 통해 '치킨 먹을 만한 정확한 상황'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 '-각'의 정확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8) a. 말복맞이 KFC 치킨 '1+1' 행사, 네티즌 “KFC 치킨각” (국제신문 2017. 08.11)
 b. “치킨집 폭발” 오늘 (23일) 저녁 9시 ‘호날두 vs 메시’ 엘 클라시코 열린다... ‘엘 클라시코’는 보통 새벽 시간대에 열려왔다. 하지만 기존 ‘엘 클라시코’와 달리 이번에는 오후 9시에 열리면서 국내 축구팬들은 “본방 사수 치킨각이다”를 외치고 있다. (Insight 2018.01.27)

다음 개인 트위터에서 발췌한 글에서 보면 ‘택시각’이나 ‘부츠각’이라는 신조어는 날씨 상황에 맞게 다른 이동수단 보다는 택시를 선택할 것을, 혹은 다른 종류의 신발보다는 부츠를 선택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상황판단에 근거한 선택을 제시할 때 '-각'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9) a. 오늘처럼 비오는 날은 택시각
 b. 오늘 날씨 부츠각

(20)의 예에서도 '-각'의 '정확성' 의미가 강조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험기간이라는 특정기간은 시험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라서 바쁘다. 이와 더불어 내려진 살인적으로 많은 과제의 양을 보고 '정확하게 자살할 상황'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 (20) A: 오늘 교수님이 내주신 과제 들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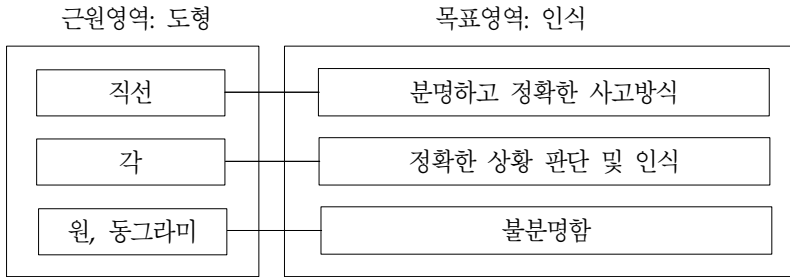
- B: 응. 27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요약해오기였지?
 A: 맞아. 솔직히 너무 많은 것 같아.
 B: 그러니깐. 지금 기말고사 기간인데.
 A: 하... **자살각**이다. (네이버 신조어 사전)

또한, (21)의 다양한 예에서도 ‘소장각’, ‘인정각’, ‘합격각’, ‘공유각’의 신조어들이 ‘정확하게 소장하기 좋은 것’, ‘정확하게 인정할만한 상황’, ‘당연히 합격할만한 상황’, ‘꼭 공유할만한 내용’이라는 것을 각각 뜻하고 있어, 주어진 상황에 비추어서 판단을 내려 보면 ‘정확하게 -할만하다’ 혹은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뜻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 (21) a. 이걸 **소장각** 나만 알고 싶은 뷰티 아이템2) (네이버 포스트)
 b. 연예인 수치, 리얼 민낯 미모도 **인정각** (문화뉴스 2018.01.01.)
 c. 알바천국, 고사장 앞 ‘이미 **합격각**’ 수능응원 열전 (연합뉴스 2015.11.13.)
 d. 여행 전 필수 **공유각**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은?3) (네이버 포스트)

대인관계에서 ‘날카롭게 대립함’을 의미했던 ‘(-)각’이 인식이라는 영역에서 사용되게 됨에 따라 현재의 상황과 조건을 인식하는데 필요한 ‘정확성’으로 의미가 변화되었다. 즉 대인관계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하던 ‘(-)각’이 인식의 영역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그림 2>에서는 다양한 도형 표현들이 인식의 영역에서 어떤 요소와 사상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직선적 사고’는 ‘대상의 본질을 직시하는 사고 활동’을 말하며, ‘-각’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확한 상황 판단’을 의미하며 ‘동그라미’는 ‘두루뭉술하다’로 표현되면서 ‘명확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도형이 인식과 판단의 영역에 사상되면 대인관계의 영역에 사상될 때와 정 반대의 요소를 부각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인관계의 영역에서 ‘직선’이나 ‘각’을 통해 부각되었던 부정적 요소가 은폐되고 긍정적 요소가 부각되며, ‘원’을 통해 부각되었던 긍정적 요소가 은폐되고 부정적 요소가 부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 다음 웹사이트에서 2018년 1월 12일 발췌한 예문이다.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0900803&memberNo=12176094&vType=VERTICAL>
 3) 다음 웹사이트에서 2018년 1월 12일 발췌한 예문이다.
<http://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8951329&memberNo=30305360&vType=VERTICAL>



〈그림 2〉 [인식은 도형] 은유

4.3. 은유적 은폐와 부각의 변화

[논쟁은 전쟁] 은유의 사상에서는 전쟁에서의 공격과 방어, 승리와 패배의 개념을 부각하고 나머지는 은폐하였다. 이와 같이 [관계는 도형] 은유에서는 선과 도형의 모양과 성질을 부각해 이를 대인관계라는 목표영역과 연결 지었다. 그 중에서 도형을 이루는데 필요한 ‘각’은 각을 이루었을 때 생겨나는 뾰족하고 모난 성질을 부각하여 과거에는 ‘예민한 성격’,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함’이라는 부정적 측면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

신조어 ‘-각’은 도형을 이루면서 생겨나는 각의 뾰족함이 부각된 것이 아니라 ‘도형을 이루기 위한 정확성’을 부각하며 나머지를 은폐하고 있다. 신조어에서는 각을 이루기 위해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는 ‘정확성’을 부각한다. ‘-각’의 ‘도형을 이루기 위한 정확성’ 부각을 통해 과거의 부각되었던 ‘각을 이룸으로서 생기는 모남, 날카로움’의 성질을 은폐한다. 근원영역에서의 정확성이 상황인식이나 판단 영역이라는 목표영역으로 사상되면 ‘상황에 딱 들어맞는 정확성’이 부각되게 된다. 이러한 부각과 은폐의 변화로 인하여 과거에는 ‘각’이 ‘성격적 결함’이라는 부정적 의미와 연결되었지만, 신조어 ‘-각’에서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간파’라는 긍정적 의미와 연결되고 있다.

5. 신조어 ‘불금’에 나타난 은유의 은폐와 부각

지금까지 ‘-각’이라는 표현을 통해 도형이 성격이나 대인관계에 사상되는지 혹은 인식에 적용되는지에 따라 은유의 부각과 은폐의 측면의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신조어 ‘불금’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난다. ‘불’이 어떤 목표영역과 연결되는가에 따라 은유의 부각과 은폐의 변화 양상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분노’라는 목표 영역에 사상되면 ‘불’의 높은 온도가 부정적으로 부각되지만 ‘사랑’이라는 목표 영역에 사상되면 ‘불’의 높은 온도가 긍정적으로 부각된다. 사랑의 정점에 다다른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신조어 ‘불금’에서도 이

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된다.

5.1. [분노는 불(ANGER IS FIRE)] 은유

감정의 영역에서의 불은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과 연결되어 은유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불로 인해 온도가 올라갔을 때 몸속의 뜨거운 액체가 끓어올라 폭발하게 되는 상황을 추론하게 된다. (22)의 예에서 보면 불로 인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얼굴이 별정계 달아올라 수도 있고, 속에 있던 끓는 액체로 인해 김이 솟구쳐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2) a. 고참병들의 얼굴이 **별정계 달아올라** 있었고 내무반장의 욕설이 파편처럼 튀어오르고 있었다. (좋은생각 1999. 07)
- b. “니가 가뿌리만 되지, 바보자숙아.” 그러자 토끼는 속았다는 걸 알았는지 얼굴을 무섭게 부풀리더니 황만근의 얼굴에 **매운 김을 내뿜었다**. (성석제,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23a)의 예에서 보이듯이, 불길이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몸속에서 화라는 액체가 끓어올라 솟구쳐 오르기도 하며, (23b)의 예에서 보이듯이, 불이 시뻘정계 타오르는 것처럼 화도 시뻘정계 타오르며 (23c)에서와 같이 분노도 불길처럼 활활 타는 것으로 표현된다. 불길이 높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 분노의 영역으로 사상되면 화가 폭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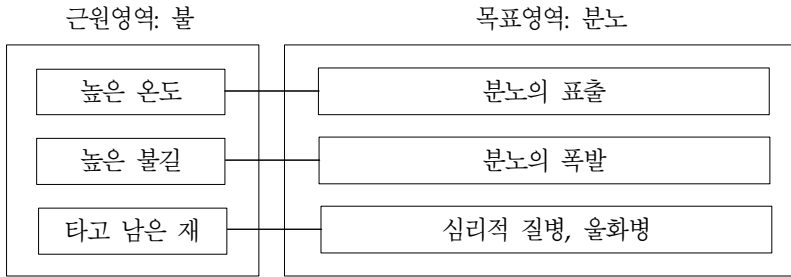
- (23) a. 문득 **화가 솟구쳐 올랐다**. 왜 자신에게 이런 대접을 하는 건지, 그렇게 밖에는 할 수 없는 건지 따져 묻고 싶었다. (서연, 박씨부인전 2권)
- b. 예전에 당한 걸 생각하면 종리연은 아직도 **화가 시뻘정계 타올라** 집을 활활 불태우는 화마처럼 솟구쳤다 (수라백, 자하기 5)
- c. 스노든이 지핀 불, ‘**활활 타는** 남미’... 볼리비아 대통령의 전용기가 오스트리아에 불시착한 사건을 계기로 남미 국가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시사HN 2013.08.13)

불은 온도를 올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무언가를 태우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타고난 물건은 까맣게 그을리고 더 이상 못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분노로 인해서 속이 타게 되면 (24a)처럼 타고 있는 부위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차가운 음료를 마시기도 하고, (24b)처럼 탄 자리가 시커멓게 되어 병이 들기도 한다.

- (24) a. 왕비는 **속이 타서** 꿀물을 별떡별떡 마시고 있었다. (유주현, 대한 제국)
- b. “뭐 하러 거기까지 기어 올라간 거야? 엄마 **속 까맣게 타서** 문드러지는 거

보려구? 이.....” 병신, 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꿀꺽 삼켰다.(하성란, 푸른 수염의 첫 번째 아내)

감정의 개념에서 주로 화, 분노, 속상함과 같은 부정적 감정들이 불과 연결된다. 불의 뜨거운 온도, 그리고 빨강계 타오르는 모습은 사람이 화를 낼 때 얼굴에 피가 쏠리게 되어 얼굴이 붉어지고 뜨거워지는 신체적 반응과 직결된다. 불은 화라는 액체를 끓이는 것으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화라는 액체가 폭발하게 된다. 즉, 높은 온도는 분노의 상승과 폭발로 연결된다. 불에 의해 물체가 타고 나면 재가 남게 된다. 이는 모든 것이 타고 남게 되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어떤 것에 의해 화를 참다가 결국 풀지 못하고 마음에 남아 있는 ‘속상함’의 개념과 연결된다. 이와 같은 은유적 사상이 다음 <그림 3>에 요약되어 있다.



<그림 3> [분노는 불] 은유

5.2. [사랑은 불(LOVE IS FIRE)] 은유

‘사랑’이라는 목표영역을 ‘불’이라는 근원영역으로 이해하는 은유는 [분노는 불] 은유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언어에 보편적으로 나타난다(Kövecses, 1986). 사랑의 시작은 불씨로 개념화된다. (25)의 예에서처럼, ‘불씨를 당기고’, ‘불을 지퍼주는’ 것은 사랑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 (25) a. ‘뷰티풀 마인드’ 사랑에 눈 뜬 장혁, 박소담과 로맨스 불씨 당기나 (chosun.com 2016.07.25.)
- b. 그녀는 한겨레 21과의 짧은 인터뷰가 “식으려던 오래된 사랑에 다시 불을 지퍼 주었다”고 말했다. (한겨레 21 2011.10.17)

(26)에서 보이듯이, 사랑이 상승세를 타서 최고점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불붙는다’고 표현한다.

- (26) a. '변혁의 사랑' 최시원과 강소라의 로맨스가 다시 **불붙을까?** (YTN 2017.11.17)
 b. 당신의 사랑은 **불붙은** 37도, 아니면 차갑게 식은 35도? (CNB 저널 2016.04.21)

그러나 불붙은 사랑은 지속되기가 어렵다. 불은 활활 타고 나면 꺼져버리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뜨거운 사랑은 곧 재가 되고 말며 식게 되면 사랑은 사라지게 된다. 그러한 불의 속성이 사랑 영역에 사상되면 (27)과 같은 표현이 가능해진다.

- (27) a. 사랑 **뜨겁게 타다**, 그리고 **재가 되다** (오마이 뉴스 2005.11.27.)
 b. 쉽게 **달궂히고 빨리 식어버리는** 한국인의 양은냄비 같은 사랑 또한 한국인 특유의 조급성과 관계있음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식도락, 보헤미안)
 c. 그녀와 만났던 20대의 정열은 **식었지만** 또 20년 후 귀여운 증손자들의 이야기
 기를 나눌지라도 옛 사람과의 만남을 즐거운 것이다. (수필공원 1994. 봄)

불이 붙은 후 뜨겁게 달궂이지만 이내 식어버리고 재로 남게 되는 사랑의 개념은 '불장난'으로 쉽게 개념화된다. (28)의 예에서 '불장난'으로 개념화 된 사랑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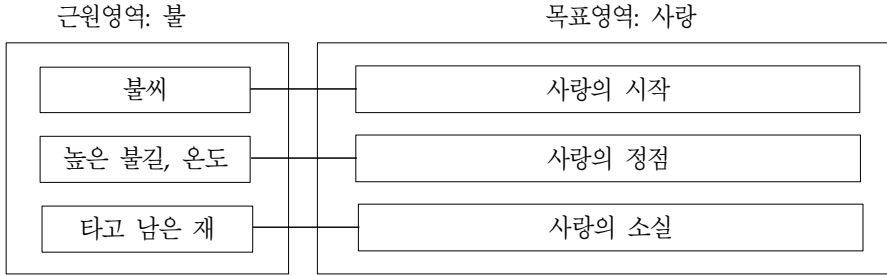
- (28) a. 철 없는 10대들이 순간의 **불장난**을 저지르고 난 뒤에도 후유증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어쩔 줄 모르고 혼자 고민하다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로 빠져드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경향신문 1996.07.16)
 b. 블랙핑크 "'**불장난**' 같은 사랑 아직 경험 못했다" (한국경제 2016.11.02)

불이 지퍼졌을 때의 높은 온도는 애정의 강함의 정도, 그리고 타오르고 난 뒤 불이 꺼지며 차갑게 식어가는 온도의 개념은 열정적 사랑이 식는 것에 사상된다. 한 쌍의 남녀가 만나 사랑할 때 체온이 올라가고 그 후 다시 내려가는 특성이 '불'로 개념화된다. 또한 사랑을 시작할 때의 열정 또한 '불'이 활활 타는 것으로 개념화된다. 불이 타오르고 식은 후 불을 매개로 했던 것들이 다 타버리면 소멸되는 것은 사랑을 끝내고 남남으로 돌아가는 관계의 소멸과 연결된다.⁴⁾ 이러한 사상이 다음 <그림 4>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때 높은 불의 온도는 사랑

4) 다음 (i)와 (ii)에서는 주가 상승세에 대해서 모두 '불이 활활 타다' 혹은 '불이 불다'로 개념화하고 있어 [경제는 불] 은유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 a. **활활 타는** 증시... "조정기 압박" 잇단 경고음 (미주 한국일보 2017.11.29.)
 b. 코스닥, 정부의 시장 활성화 기대감 타고 '**활활**' (경향비즈 2017.11.14.)

의 정점으로 치솟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분노는 불] 은유와는 달리 긍정적으로 사랑의 개념과 사상된다고 보인다.



〈그림 4〉 [사랑은 불] 은유

5.3. [인생은 불(LIFE IS FIRE)] 은유

위의 사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불’은 근원영역으로서 다양한 목표영역을 이해하는데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은유적 사상은 다양한 개념들과 연결되었으며 특히 ‘사랑’과 ‘감정’ 개념에서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주목할 것은 [분노는 불] 은유에서 ‘불’의 높은 온도가 부정적인 의미에 사상되었지만 [사랑은 불] 은유에서 ‘불’의 높은 온도는 사랑의 정점에 사상되면서 긍정적으로 부각됨을 알 수 있었다. ‘사랑’의 개념에서는 ‘불장난’ 재가 되어 버린 사랑과 같은 표현에서 발견되듯이 뜨거운 불의 온도가 불이 다 타고 나면 식어버리고 만다는 점과 연결되면서 ‘사랑의 소실’에 사상된다. 다시 말하면, [분노는 불] 은유에서는 불씨, 불의 높은 불길, 온도, 불이 꺼졌을 때 남은 타버린 재 등이 모두 부정적으로 연결되는 반면, [사랑은 불] 은유에서는 불씨나 불의 높은 온도가 사랑의 시작이나 사랑이 활활 타오르는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연결되지만 불이 타고 난 후의 식은 상태나 재가 남은 상태는 사랑의 소실을 의미해서 부정적으로 연결된다.

같은 ‘불’이라는 근원영역이 ‘태도’를 이해하는 데 사용되면, 매우 높은 수준의 열정을 가

- c. **활활타는 SK** 하이닉스 주가에 ‘도시바 인수’ 기름 (연합뉴스 2017.06.24.)
- (ii) a. “8.2 대책 전보다 더 올랐다”...다시 **불붙은** 서울 아파트값 (연합뉴스 2017. 11.26)
- b. **불붙은** 코스닥 ‘거품 논란’ 걱정 안해도 될까 (연합뉴스 2017. 11.16)
- c. 사우디 ‘피의 속창’으로 **불붙은** 국제유가 70 달러 넘나 (한겨레 2017.11.08.)

[경제는 불] 은유는 [사랑은 불] 은유와 비슷하게 불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이 정점으로 가는 과정으로 묘사되면서 긍정적으로 사상된다. 그러나 사그라지는 불의 속성 또한 부각된다. 그래서 주가가 활활 타고 불붙지만 결국은 사그라질 것을 예상하고 있는 표현들이 함께 등장하고 있다. (ia)에서의 ‘조정기 압박’과 (iib)에서의 ‘거품’이라는 표현이 그렇다.

리키게 되어 ‘불’의 긍정적 측면만이 부각된다. (29)에서와 같이 ‘활활 타오르다’ 혹은 ‘불타다’라는 표현은 높은 수준의 열정을 가리킨다.

- (29) a. ‘명불허전’ 김남길X김아중, 폭염보다 **‘활활’ 타는** 촬영 비하인드...폭염 속 더욱 **활활 타오르는** 현장의 열기는 김남길과 김아중이 다시 한 번 인생캐릭터를 갱신한 동력이다. (chosun.com 2017.08.17.)
 b. **불타는** 열정, 청년의 가슴은 뜨거워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신조어 ‘불금’에서는 ‘불’은 은유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태도’에 사상된다. 이때 (30)의 정의와 (31)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불’은 ‘정열’ ‘높은 수준의 즐거움’의 의미로, 불의 활활 타오르는 열기가 부각된 양상을 보인다.

- (30) 불금(불타는 금요일): 쉴 수 있는 주말을 맞는, 설레임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금요일을 뜻한다. 주말을 맞아 쉴 수 있어 열정적으로 놀 수 있는 금요일이라는 신조어이다. (네이버 신조어 사전)
- (31) a. 오늘은 신나는 **불금**. 저녁에 술 한잔 어때? (나무위키)
 b. 다들 **불금**이라 좋아하지만 난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 신세라서 서글프네. (나무위키)
 c. **불타는 금요일**이 홍대와 강남에 남긴 것⁵⁾
 d. **‘불타는 금요일’** 한 시간만 늦게 만나요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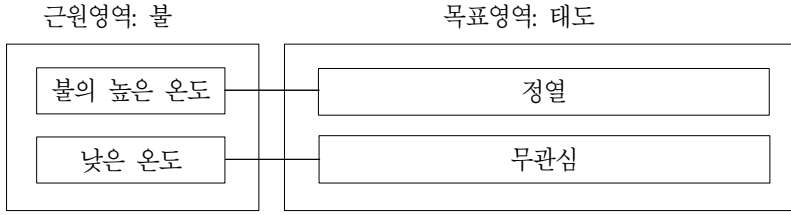
반면, 불의 열기가 식어버린 경우 다음과 (32)과 같이 무관심을 의미하기도 한다.

- (32) a. 무관심은 감정 중에서도 가장 무겁고 **식어버린** 감정이다. 어떤 느낌이 생기려면 일단 상대를 바라보고 집중해야 하는데 그 최소한의 관심도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윤홍균, 자존감 수업)
 b. 갑자기 **식어버린** 그녀의 태도에도 도진은 의아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연아, 도도한 유혹)

다음 <그림 5>에 불 영역과 태도 영역의 은유적 사상이 나타나있다.

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9/2017092902309.html

6)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321500164&wlog_tag3=naver



〈그림 5〉 [태도는 불] 은유

‘불금’은 ‘불의 열기’를 ‘인간의 열정, 격렬함’과 연결 짓는다. 이로 인해 ‘열정적인 금요일 밤’ ‘열정적으로 놀며 스트레스를 푸는 금요일 밤’처럼 긍정적 의미로서 ‘불’의 은유적 사상이 연결되고 있어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4. 은유적 은폐와 부각의 변화

이처럼 ‘불금’에서는 ‘불’의 개념을 은유적 사상을 통해 ‘열정’, ‘격렬함’으로 연결하고 있다. ‘불’의 개념이 [분노는 불]이라는 은유에 사용될 때는 주로 부정적인 요소가 사상된다. ‘감정’의 개념에서는 ‘불의 뜨거운 온도’와 ‘불로 인해 타버린 물질’을 부각하고 나머지 영역은 은폐하여 ‘화, 분노, 안타까움, 슬픔’과 같은 감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데 사용하였다. 불이 매개체(액체)를 폭발시키고 이로 인해 마음이나 속을 태우게 될 때 손실을 입게 되는 부분에 부각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신조어 ‘불금’에서는 ‘불’ 개념의 긍정적 요소가 부각된다. ‘불’에 의해 생겨난 열기를 ‘열정’으로 은유적 사상을 통해 연결했다. 즉 ‘불의 열기’를 부각하고 나머지는 은폐하여 ‘열정’이라는 긍정적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이다. 불이 점차 뜨겁게 달구게 되는 즉, 불에 의해 점차 올라가는 온도와 열기는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점차 즐길 때의 즐거움이 배가 되는 점을 부각한다. 은유적 부각과 은폐의 변화는 ‘불금’이라는 표현에서 발견되는 ‘불’의 개념을 인생의 ‘정열’이라는 요소가 부각되도록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결론

지금까지 신조어 ‘-각’과 ‘불금’에 나타나는 ‘각’의 의미와 ‘불’의 의미를 중심으로 두 개념이 어떠한 목표영역에 사상되는가에 따라 은유적으로 부각되고 은폐되는 측면이 달라지는 것을 살펴보았다. ‘각’은 각을 이루는 도형의 각지거나 모난 모습 그리고 그 결과 그 도형이 갖게 되는 날카로움이라는 특성이 사람의 성격이나 대인관계에 사상되면서 모나고 날카로운 성격 혹은 그러한 성격으로 인한 대인관계의 부조화를 이해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즉, 도형

이 인간관계라는 목표영역에 사상될 때에는 두 선분이 만나서 이루게 되는 각의 날카로움이 부각되었고, 나머지 측면은 은폐되었다. 그러나 신조어 ‘-각’에서는 [인식은 도형]이라는 은유가 생성되면서 ‘각’의 정확성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고 날카로움이라는 부정적 측면은 은폐된다. 각의 정확성이 인식이라는 목표영역으로 사상되게 되면 정확한 상황인식 혹은 정확한 판단력이라는 뜻으로 이해된다.

‘-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금’의 ‘불’도 은유의 은폐와 부각 양상의 변화를 보여준다. [분노는 불] 은유의 경우, ‘불’의 급하고 강한 성질과 ‘불’의 파괴력이 부각된다. 불이 붙게 되면 급하게 강해지는 불의 성질이 부각되면서 목표영역에서도 분노가 급하고 강해지는 측면이 부각되게 된다. 또한 불이 한 번 붙게 되면 견잡을 수 없이 커져서 많은 것을 파괴한다는 불의 특성이 분노라는 목표 영역에 부각되어 사상되면 분노도 급하고 강하게 경험하게 되고, 그 이후 파괴된 마음이 ‘재’로 남게 된다는 측면이 부각되어 사상된다. 그러나 신조어 ‘불금’에서의 ‘불’은 그 뜨거움이 금요일을 즐기는 열정으로 사상되면서 삶에 대한 정열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불의 뜨거움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된다.

참고문헌

- Lakoff, G. (1993). The contemporary theory of metaphor. In A. Ortony (Ed.), *Metaphor and thought* (pp. 202-25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koff, G. & Johnson, M.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övecses, Z. (1986). *Metaphors of anger, pride and love. A lexical approach to the structure of concepts*.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Kövecses, Z. (2010). *Metaphor: A practical introduc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심주완

61452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학부생
이메일: ja794613@naver.com

최영주

61452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
이메일: ychoi1@chosun.ac.kr

Received on February 1, 2018

Revised version received on June 9, 2018

Accepted on June 30, 2018